가뭄으로 4대강 수질 "악화"

환경부, 팔당호 BOD 1.2mg/l … 폐수 무단방류 엄벌

가뭄 등의 영향으로 4월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이 한달전보다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수계 팔당호의 3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평균 1.2㎎/ℓ로 2월의 1.0㎎/ℓ보다 약간 악화됐으며, 팔당 하류 주요 지점의 BOD도 한달 전보다 0.1-2.4㎎/ℓ까지 늘어났다.

팔당호는 가뭄으로 축적된 오염물질이 3월 빗물과 함께 유입됐고, 팔당 하류는 댐 방류량이 한달전보다 45% 줄어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낙동강 수계도 상류의 안동에서 하류의 구포까지 모든 지점에서 BOD가 0.2-3.4㎎/ℓ까지 증가했다. 2월에는 물금과 구포에서 조류의 일종인 클로로필-a의 농도가 각각 39.3㎎/㎥과 36.2㎎/㎥에 달했으나 3월에는 각각 114.6㎎/㎥과 82.3㎎/㎥으로 급상승했다.

금강 수계는 최대 상수원인 대청호가 BOD 1.2㎎/ℓ으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나머지 지점에서는 오염도가 다소 증가했고 영산강 수계도 모든 지점의 수질이 악화됐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전남 일대의 상수원인 섬진강 수계의 주암호는 BOD 0.7㎎/ℓ으로 2월과 마찬가지로 1급수를 유지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이경우 검사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허용기준치의 최고 500배가 넘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헬멧 제조기업 대표 김아무개(48)씨와 정화조 차량 운전기사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송아무개(45)씨 등 39명을 4월26일 불구속기소했다.

구속된 김씨는 2001년 9월부터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서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납 0.641ppm(기준치 0.2ppm)이 들어 있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38ppm(기준치 50ppm)에 이르는 공장 폐수 200리터를 팔당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화조 차량 운전기사 최아무개(52)씨 등 3명은 2001년 5월 하남시 덕풍동 섬유가공업소에서 1차례에 5만원을 받고 납 103ppm, 카드뮴 0.25ppm(기준치 0.02ppm), 크롬 19.86ppm(기준치 0.5ppm)이 함유된 화학적산소요구량 2만1357ppm 상태의 섬유폐수를 분뇨처리장 주입구에 몰래 버려 한강으로 유입시킨 혐의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01>